

‘11연패 뉴’ 탈출구 없는 페퍼저축은행 ‘어쩌나’

세시즌 연속 두 자릿수 연패 시즌 반환점서 승점 7 그쳐 공격 성공률 37.46% 최하위 디그·리시브 등 수비도 열악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의 탈썰찌 희망이 떨어져 가고 있다. 조 트린지 페퍼저축은행 감독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변화를 주겠다”고 선언했지만 공수 모두 방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3년 연속 최하위 수령으로 향하고 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22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와 도드람 2023-2024 V-리그 여자부 3라운드 6차전에서 세트 스코어 2-3(17-25, 25-20, 21-25, 25-20, 17-19)으로 졌다.

이날 패배로 페퍼저축은행은 11연패 늪에 빠졌다. 패배 위기에서 4세트를 가져오며 폴세트 역전승을 꿈꿨지만 14-13으로 먼저 매치 포인트를 잡고도 네 번의 듀스 끝에 17-19로 무너졌고, 지난달 10일 GS칼텍스전 이후 42일간 무승을 기록했다.

페퍼저축은행은 3라운드까지 2승 16패, 승점 7 적립에 그치면서 3년 연속 최하위 타이틀도 유력해졌다. 지난 24일까지 한 경기를 덜 치른 6위 한국도로공사(5승 12패, 승점 16)와 격차는 9점까지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선수단이 지난 22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배구단과 도드람 2023-2024 V-리그 여자부 3라운드 6차전에서 실점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벌어졌다.

페퍼저축은행이 또다시 최하위에서 머무르고 있는 이유를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총체적 난국’이다. 공격과 수비 지표가 대부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올 시즌을 앞두고 영입한 야스민 베다르트가니

와 박정아도 분위기를 뒤집기에는 힘이 부치는 모양새다.

페퍼저축은행은 올 시즌 18경기, 70세트에서 1447득점을 만드는데 그쳤다. 1경기, 1세트를 덜 치른 한국도로공사보다 17득점 많고 1경기, 5세트를 덜 치른 GS

칼텍스보다 17득점 적은 수치다. 공격 성공률은 37.46%로 유일하게 38%대에 못미치고 있다.

조 트린지 감독은 공격이 잘 풀리지 않자 주전 세터를 이고은에서 박사랑으로 교체하며 변화를 꾀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 시간차 공격(41회)과 이동 공격(1회)의 시도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등 단조로운 공격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페퍼저축은행은 수비에서도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디그가 세트당 평균 18.5개로 6위에 머무르고 있고, 리시브 효율은 최하위인 29.87%로 7개 구단 중 유일하게 3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지나치게 많은 범실도 문제다. 페퍼저축은행은 올 시즌 354개의 범실을 기록하고 있다. 정관장(383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인데 25점으로 환산하면 14세트를 공짜로 상대에게 내준 셈이다.

블로킹의 발전은 유일한 위안거리다. 2022-2023시즌 평균 1.65개(유효 블로킹 864개)로 최하위에 머물렀던 블로킹 수치가 이번 시즌 평균 2.29개(유효 블로킹 450개)로 2위까지 치솟았다. 야스민과 엠페이 필립스, 하혜진의 영입으로 지난 두 시즌 간 문제점으로 꼽혔던 높이를 보강한 효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박정아의 체력 저하가 눈에 띄는 부분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페퍼저축

은행은 여자부 연봉 상한액인 7억7500만원을 안기며 박정아를 영입했으나 이번 시즌 내내 리시브 약점을 공략하는 목적타에 고전해왔다.

과거 IBK기업은행과 한국도로공사, 국가대표팀에서는 박정아의 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을 활용해왔지만 조 트린지 감독은 박정아에게도 함께 수비에 가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박정아는 2라운드까지 161점을 생산하며 국내 선수들 중 득점 순위 4위에 올랐다. 하지만 3라운드에서는 어깨 통증으로 휴식을 취하는 등 57점에 그쳤고, 표승주(IBK기업은행·236점)에 밀리며 5위로 내려섰다.

리시브에서도 약점이 수지로 드러나고 있다. 박정아는 201회의 리시브 시도 중 43회를 정확하게 받아냈다. 세트당 평균 0.41회로 리시브 효율은 13.93%에 그쳤다. 2라운드(16.78%)에 비해 2.85% 하락했고, 30위 이내의 선수 중 가장 낮은 효율이다.

조 트린지 감독은 최근 “지도자 생활에서 두 자릿수 연패는 처음이다. 늘 새로운 방식으로 좌절하고 있다”며 “더 세밀하게 수비를 하는 것이 방법일 것 같다”는 평가를 남겼다. 다만 최고 장점이라고 소개했던 그의 데이터 분석이 경기 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붙는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올해를 마지막으로 은퇴하는 광주시청 양궁팀 기보배.

전남일보 자료사진

‘2010년대 한국 여자양궁 간판스타’ 기보배 은퇴한다

31일 광주시청 계약 만료 대학서 후학 양성 매진

‘2010년대 한국 여자양궁 간판스타’ 기보배(35·광주시청)가올해를마지막으로 24년 동안의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후학 양성에 매진한다.

25일 광주시청 양궁팀에 따르면 기보배가 오는 31일자로 계약을 만료하고 은퇴한다.

안양서초 4학년 때 과외 활동으로 처음 활을 잡은 기보배는 안양서초 3학년 때 전국소년체육대회 3관왕에 오르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후 주니어 세계선수권 단체전 우승과 세계대학선수권 2관왕(개인·단체)을 휩쓸면서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광주여대로 진학한 뒤에는 기량이 일취월장했다. 김성은 광주여대 감독의 특유의 지도력이 기보배의 잠재력을 끌어내며 전국체전 등 각종 국내대회를 휩쓸었다.

광주시청에 입단하면서부터는 세계 최강의 공사로 거듭났다. 2010년 광주여대 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을 거머쥐면서 ‘열쌍 신궁’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2011년 중국 선전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3관왕(개인·단체·혼성전), 2012년 런던올림픽 2관왕(개인·단체), 2013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2관왕(단체·혼성),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관왕(개인·혼성)·세계양궁선수권 혼성 금메달, 2016년 리우올림픽 단체전 금·개인전 동메달 등 굵직한 국제 대회에서 금

메달을 쓸어담으며 ‘한국 양궁 여제’로 우뚝 섰다.

기보배는 2017년 결혼과 함께 출산하면서 오랫동안 몸을 만들지 못한 탓에 기량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번번히 탈락했고, 2023년 국가대표 선발전 최종 8위로 태극마크를 달았지만 최미선(광주은행 텐텐양궁단), 안산(광주여대), 임시현(한체대), 강채영(현대모비스) 등 후배들에게 밀려 세계 무대에 나서지 못했다.

기보배는 내년 파리올림픽 출전에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지만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고 올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기로 결심했다. 기보배는 은퇴 후 대학에서 후학 양성에 매진할 계획이다.

최동환 기자

광주대 국관우, 성남FC 공개 테스트 450:1 뚫어

덴소컵 2023 국가대표 출신

광주대 축구부 소속 미드필더 국관우(21·사진)가 프로축구 K리그2 성남FC 공개 테스트에서 450:1의 경쟁률을 뚫었다. 앞서 최병찬과 김진래, 김원준 등이 성남에서 공개 테스트 신화를 쓴 가운데 국관우가 이 계보를 이을지 주목된다.

성남FC는 지난달 시행한 2024 프로팀 공개 테스트에 지원한 450명 중 서류 전형과 실기 테스트를 통해 국관우를 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관우는 2002년생으로 광양제철남초-순천매산중-목포공고를 거쳐 광주대에 진학했다.

국관우는 주포지션인 미드필더와 함께



공격수까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멀티 자원이다. 상대 수비수를 흔드는 움직임과 속도를 활용한 드리블, 일대일

돌파가 장점으로 지난 9월에는 제22회 덴소컵 한·일 대학축구정기전 국가대표로 선발된 바 있다.

국관우는 구단을 통해 “명문 구단인 성남의 선택을 받은 만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며 “공개 테스트에 임했던 간절한 마음을 잃지 않고 2024시즌 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한규빈 기자

KBO, 완도·해남 등에 ‘야구 클러스터’ 조성 추진



한국야구위원회(KBO)가완도와해남 등 남해안 벨트의 야구 인프라 개선을 통한 전남도 야구 클러스터 조성 등 야구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상생방안 협의에 나섰다.

KBO는 허구연 총재가 지난 21~22일 신우철 완도군수와 명현관 해남군수를 방문해 프로야구 퓨처스리그, 아마추어, 동

호인 야구팀의 대회와 동계 전지훈련 유치 가능한 야구장 인프라 조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허구연 총재와 면담에서 기존 야구장에 실내 야구 연습장을 추가 구축하고 새로운 야구장 1면을 추가 건립하기로 합의했다. 허구연 총재는 지난달 국내 최초 개관한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해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비시즌 야구선수들의 피로 회복과 컨디션 관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허구연 총재는 명현관 해남군수와는 야구장을 비롯해 실내 연습장 등 야구 대회 및 동계 전지훈련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 협의했으며 내년 2월 진행 예정인 ‘2024 KBO Next-Level Training Camp’를 유치하기로 했다.

한규빈 기자